

한국 자살현상의 특징과 인류학적 연구의 가능성

이현정*

1. 들어가며

최근 몇 년간 '자살'은 한국 사회를 특징짓는 단어들 중 하나로 부각되어 왔다. 이은주, 최진실, 장자연 등 연예인들의 자살사건에 이어, '명퇴' 및 경제적 압박 속에 신음하던 4, 50대 가장들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 왔으며, 빈곤과 질병에 노출되어 온 노인 자살이 급증하고, 최근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독극물 판매 및 동반 자살 모의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2004년 이후 몇 년간 한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 중 1위의 자살률을 기록함과 동시에 여성 자살률이 증가 추세인 유일한 국가로 자리매김했다(OECD 2007). 더욱이 2009년 5 월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생을 마감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놀

* 미국 워싱턴대학교(세인트 루이스) 박사

라게 하였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자살은 더 이상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며,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 혹은 질병의 문제로 바라보기엔 너무나도 복잡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요인들이 결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글은 한국 자살현상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인류학적 시각에서 한국 자살현상을 어떻게 연구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글에서 다루는 한국 자살현상의 특징 및 연구방법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제 인류학적 연구 가능성은 이 글에서 논의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특별히 다음 두 가지 현상을 중심으로 인류학적 자살 연구가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통계청의 연간 『사망원인통계결과』(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a)의 자료에 비추어 보면, 한국의 자살률은 최근 15년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동시에 성별 구조의 측면에서 독특한 양상을 띠고 있다. 1986년부터 1994년까지 10만 명당 10명 전후의 비교적 일관된 흐름을 보이던 한국의 자살률은 1995년 11.8명을 기록하면서 10명대를 넘어서고, 2008년에는 무려 26.4명의 자살률을 기록하였다. 설령 모든 자살행위가 환경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정신병리학적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통계 자료는 자연스럽게 “지난 15년간 한국 사회에 도대체 어떠한 변화와 충격 그리고 도전들이 존재해 왔는가” 하는 사회과학적 질문을 제기한다. 한편 통계 자료는 최근 몇 년간 20~39세 여성의 자살률이 특별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통계적 사실로부터, 과연 젊은 여성들이 자살하도록 이끄는 어떤 특별한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최근 한국 사회에 존재해 왔는가 하는 질문이 구체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둘째, 한국 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살 관련 다양한 담론들에 대한 분석은 자살에 관한 한국인의 이해방식 및 태도, 나아가 한국 사회

문화 전반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자살에 관한 지배적 담론들이 실제 자살을 시도해 온 행위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제한적인 이차적 자료에 기대어 판단해 볼 때,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자살 담론들은 대략 몇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그중 두 가지만 살펴본다면, 대부분의 연예인 자살사건 보도 속에서 드러나듯, 한편으로 자살은 종종 자살자 개인의 우울증 병력과 연관되어 설명되며, 이러한 맥락 속에서 자살은 비정상적 혹은 질병적 행위로서 이해된다. 다른 한편 한국 사회에서 자살은 때때로 개인적 절망의 표현을 넘어 도덕적 고발 내지 정치적 선언으로서 해석된다. 예컨대 연예인 장자연의 자살은 한국 연예계 '성 상납' 문제 및 고위 정재계 인사들의 비도덕성에 관한 사회적 비판을 이끌어 왔으며, 전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당시 진행되고 있던 뇌물 수수 관련 조사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180도 바꿈과 동시에 현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만을 심화시켰다. 이처럼, 자살의 사회적 의미는 자살 행위의 구체적 맥락과 해석집단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며, 이들 의미망에 대한 연구는 인류학적으로 유의미해 보인다.

이러한 두 가지 현상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연구자는 본문에서 다음 두 가지 분석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첫째,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통계청의 자료를 기초로 한국 사회 자살률의 특징을 살펴본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발견되지만, 이 글에서는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져 온 남녀 자살률 성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둘째, 한국 사회에 자살에 관한 어떠한 담론들이 존재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일환으로, 최근 3년간 자살사건에 대한 신문기사 및 사설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할 것이다. 자살사건에 대한 기사 및 사설은 한국 언론 재단의 카인즈(<http://www.kinds.or.kr>)를 이용하여 검색했으며, 검색 기준은 매체사별로는 '종합일간지(서울)', 검색범위는 '제목 검색' 그리고 검색기간은 '2006년 8월 1일부터 2009년 7월 31일'로 설정했다. 그 결과 총 4,553건의 신문기사 와 23건의 사설을 얻었다. 이 조사에서 통계적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2. 통계청 자료를 통해 살펴본 한국 자살의 성별 특징

해마다 한국 통계청에서는 국민이 신고하는 사망신고서의 사망원인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망원인통계를 작성해서 공개하고 있다. 사망원인은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CD-10)를 기초로 개정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바탕을 두고 있다. ICD-10에 따르면 자살은 기타 특별한 질환의 연관성이 의심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X60에서 X84까지의 ‘고의적 자기 중독’ 내지 ‘고의적 자기 상해’에 의한 사망으로 분류된다.

최근 8년간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망원인통계결과』(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a)는 현재로서 자살률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이지만, 자료 해석에 있어서는 여전히 사회문화적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통계청의 결과 보고서는 대부분 ‘가장’인 40대 및 50대 남성의 자살률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한편 2009년 보고서에서는 “20~30대 남자의 자살률이 증가”한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여성 자살률의 증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최근 매스컴과 사회기관들은 40대 및 50대 가장의 자살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다루어 왔다. 이러한 사실들은 한국 사회에서 모든 사람의 자살이 결코 똑같이 가치 판단되지 않으며,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이 표방하는 사회적 또는 성 역할 및 지위가 가치 판단의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과연 이들 40대 및 50대 남성 집단이 자살의 위험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일까?

다음 <표 1>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의 통계청에서 발간한 사망원인 통계 결과 보고서에 나타난 자료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최근 18년간 성별 사인(死因) 순위 및 자살률의 변화이다.

<표 1>은 2001년까지 한국인의 사망원인 8위에서 10위를 차지하던 자살이 2003년부터 4~5위를 차지하며 주요 사망원인으로 급부상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지난 18년간 자살률의 증가는 남녀 모두에게서 나타나지

〈표 1〉 최근 18년간 성별 사인 순위 및 자살률의 변화

[단위: 명, 10만 명 기준; 괄호 안은 사인(死因) 순위]

연도	남녀 전체	남자	여자	남:녀 성비
2008	26.4 (4)	33.4 (4)	18.7 (5)	1.79
2007	24.8 (4)	31.5 (4)	18.1 (5)	1.74
2006	23.0 (5)	31.1 (4)	14.8 (5)	2.10
2005	26.1 (4)	34.9 (4)	17.3 (5)	2.02
2004	25.2 (4)	34.5 (4)	15.8 (5)	2.18
2003	24.0 (5)	33.2 (5)	14.9 (6)	2.23
2002	19.1 (7)	26.4 (6)	11.9 (7)	2.22
2001	15.5 (8)			
2000	14.6 (8)	20.3 (7)	8.9 (8)	2.28
1999	14.9			
1998	18.4	26.5	10.3	2.57
1997	13.1 (8)			
1996	14.1 (7)	19.4 (6)	8.7 (9)	2.23
1995	11.8 (9)	16.2 (8)	7.4 (9)	2.19
1994	10.5 (9)	14.2 (9)	6.7 (9)	2.12
1993	10.6 (9)	14.4 (9)	6.7 (9)	2.15
1992	9.7 (10)	13.1 (10)	6.1 (9)	2.15
1991	9.1 (10)			

*빈 칸은 현재로서 파악 불가능한 자료.

자료: 통계청(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a).

만,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여성의 증가가 좀 더 가파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1992년과 2008년의 자살률 수치를 비교해 보면, 남성 자살률은 2.55배, 여성 자살률은 3.07배의 증가를 보인다.

한국인의 성별 자살 패턴을 살펴볼 때 눈에 띄는 점은, 자살률의 남:녀 성비가 비슷한 경제 수준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특히 최근 두 해 동안 2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이다. 『자살론』의 저자인 사회학자 뒤르켐 이후(Durkheim 1997[1897]),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의 자살률보다 높다는 것은 자살 연구자들에게 있어 일종의 ‘불변의 법칙’이다. 경험적 자료들도 이 법칙을 지지해 왔다. 전쟁이나 대규모 학살과 같은 특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 : 녀 자살률 비가 2에서 4

〈표 2〉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남녀 자살률 및 남 : 녀 성비

(단위: 명, 인구 10만 명 기준)

	측정 연도	남성 자살률	여성 자살률	남 : 녀 성비
Australia	2003	17.1	4.7	3.64
Austria	2006	24.7	7.0	3.53
Belgium	1997	31.2	11.4	2.74
Canada	2004	17.3	5.4	3.20
Czech Repulic	2005	25.5	5.6	4.55
Denmark	2001	19.2	8.1	2.37
Finland	2006	31.1	9.6	3.24
France	2005	26.4	9.2	2.87
Germany	2004	19.7	6.6	2.98
Greece	2006	5.9	1.2	4.92
Hungary	2005	42.3	11.2	3.78
Iceland	2005	16.2	6.1	2.66
Ireland	2005	16.3	3.2	5.09
Italy	2003	11.0	3.4	3.24
Japan	2006	34.8	13.2	2.64
Luxemburg	2005	17.7	4.3	4.12
Mexico	2005	7.0	1.4	5.0
Netherlands	2004	12.7	6.0	2.12
New Zealand	2000	19.8	4.2	4.71
Norway	2005	15.7	7.4	2.12
Poland	2005	27.8	4.6	6.04
Portugal	2003	17.5	4.9	3.57
Slovak Republic	2005	22.3	3.4	6.56
Spain	2005	12.0	3.8	3.16
Sweden	2002	19.5	7.1	2.75
Switzerland	2005	24.7	10.5	2.35
Turkey*				
United Kingdom	2005	10.4	3.2	3.25
United States	2005	17.7	4.5	3.93

* 현재 WHO의 보고서는 Turkey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자료: WHO (http://www.who.int/mental_health/prevention/suicide_rates/en/index.html).

사이로 나타나는 것은 지난 수십 년간의 일관된 보고이다.

〈표 2〉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가장 최근 자료에 기초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국가의 자살률 및 남:녀 성비이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OECD 국가들의 남녀 자살률은 천차만별인 반면, 남:녀 성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2에서 4 사이로 나타난다. 헝가리처럼 남성 자살률이 무려 42.3에 이르는 경우에도, 남녀 자살률 성비는 결국 3.78로 '정상' 궤도 안에 속해 있다. 핀란드도 마찬가지이다. 핀란드도 OECD 국가 중 비교적 높은 자살률을 보여 온 나라들 중 하나로, 남성 자살률이 31.1로 2008년 기준 한국의 남성 자살률(33.4)보다 2.3 적다. 그러나 핀란드의 여성 자살률은 9.6으로 2008년 한국 여성 자살률(18.7)의 거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이웃 나라 일본은 어떠한가. 남성 자살률은 한국보다 높은 34.8이지만, 결국 남녀 성비에 있어서는 2.64로 다른 서구 국가들과 같은 범위 내에 존재한다.

그렇다면 왜 OECD 국가들 중 유독 한국만 매우 낮은 남:녀 성비를 보이는 것일까? 이 질문은 쉽게 답할 수 없으며, 답변을 위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 두 가지 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WHO(2009)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 이외에 인도와 중국이 2 미만의 낮은 남:녀 성비를 보이는 국가들이다. 그렇다면 이들 세 나라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문화적 공통점이 낮은 남:녀 성비를 설명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예컨대 중국 농촌의 경우, 여성 자살을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문화가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으며, 이러한 사회적 태도가 여성이 자살을 보다 쉽게 선택하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Lee 2009).

두 번째로, 어떤 연령/지역/직업집단의 여성들이 자살률 증가의 주된 주체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유의미해 보인다. 같은 한국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연령, 지역, 직업군의 여성들이 반드시 같은 사회 문화적 조건 속에 살지 않으며, 또한 비슷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부 분류 항목 중 통계청은 아쉽게도 연령별 자료만을 제시하고

〈표 3〉 성·연령별 자살사망률 추이, 1998, 2007, 2008

(단위: 명, 인구 10만 명 기준)

연령	남녀 전체			남자			여자			성비
	1998	2007	2008	1998	2007	2008	1998	2007	2008	
계	18.4	24.8	26.0	26.5	31.5	33.4	10.3	18.1	18.7	1.8
10~19세	6.3	4.6	4.6	6.6	4.7	4.9	5.9	4.4	4.4	1.1
20~29세	17.4	21.0	22.6	22.9	19.0	22.2	11.7	23.1	23.0	1.0
30~39세	21.5	22.4	24.7	30.7	25.7	28.3	11.9	18.9	21.0	1.3
40~49세	27.6	26.3	28.4	43.3	35.9	38.1	11.1	16.2	18.4	2.1
50~59세	30.2	31.1	32.9	49.8	47.4	50.5	11.4	14.7	15.2	3.3
60~69세	33.5	47.7	47.2	57.7	74.1	74.1	14.9	24.6	23.3	3.2
70~79세	40.6	78.5	72.0	64.4	126.4	115.0	26.8	48.1	44.0	2.6
80세 이상	50.8	117.3	112.9	91.0	206.0	194.4	35.8	80.9	79.7	2.4

있다. 〈표 3〉은 통계청 결과 보고에서 가져온 성·연령별 자살사망률 추이이다(통계청 2009a).

〈표 3〉은 여성 자살의 주된 연령층이 20~39세라는 것을 보여 준다. 특히, 2007년과 2008년 두 해 동안, 20~29세 여성 자살률이 남성 자살률보다 더 높다는 것을 주목하기를 요한다. 거의 대부분의 사회에서 모든 연령대의 남성 자살률이 같은 연령대의 여성 자살률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20~29세 한국 여성의 남성보다 높은 자살률은 매우 독특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30~39세 연령 범위에서는 여전히 남성 자살률이 더 높긴 하지만, 여성 자살률은 1년 동안 무려 2포인트 증가했고, 10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10포인트가 증가했다.

결론적으로 최근 통계청 자료는 20~39세 여성들의 급격한 자살률 증가를 보고하고 있으며, 이들 집단의 자살행위에 대한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태어난 이들 한국의 젊은 여성들은 분명히 어머니 세대들보다 더 많은 교육의 기회와 '남녀평등'의 법적 사회적 제도 그리고 자기 삶에 관한 선택의 자유를 누려 왔다. 그러나 이들 집단의 높은 자살률은 이들 여성들이 받아 온 물질적 정신적 혜택들이 삶의 행복감

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고통스럽게 하며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일까? 이들 집단에게 공통적인 심리적 경험과 삶에 대한 태도에 관한 인류학적 조사는 그 답을 찾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신문 기사를 통해 살펴본 한국 사회의 자살에 관한 태도 및 인식

이 장에서는 자살률 증가에 대한 사회적 대응으로서,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 활발하게 등장하고 있는 자살에 관한 다양한 담론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살 담론의 활성화는 젊은 여성의 높은 자살률과 더불어 한국 자살현상의 또 다른 특징으로서 나타난다. 한국 언론 재단의 카인즈 검색을 통해 접근 가능한 신문은 총 10가지였다—경향, 국민, 내일, 동아, 문화, 서울, 세계, 한겨레, 한국, 아시아투데이. 많은 신문들이 제외된 만큼, 이들 10개의 신문들이 전체 언론의 입장을 포괄할 수 없으며, 더더욱 한국 사회 전체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다. 그러나 4,500여 건의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정리한 다음 6가지 주요 관점들은 이후에 자살 담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데 나침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자살=국가적 불명예

2004년 한국 자살률이 OECD 국가들 중 1위로 자리매김하면서 자살은 ‘국가적 불명예’를 뜻하는 단어로 해석되어 왔다. “‘자살공화국’ 벗어나려면”(세계 2009년 3월 10일자), “‘자살대국’ 오명 빨리 벗어나야”(국민 2009년 5월 7일자)와 같은 기사들이 이러한 시각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유교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 속에서, 자살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예컨대 정신 질환)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홀대나 부당한 대우를 뜻

할 수 있기 때문에 종종 가족이나 마을공동체의 불명예로 여겨져 왔다. 또한 같은 전통 속에서, 국가는 하나의 확대된 가족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살자가 많다는 것은 곧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원인이 된다. 독자 기고인 “대통령 자살은 국가적 불명예다”(한겨레 2009년 5월 27일) 역시 비슷한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기고자는 “국민에게 남기는 유서 한 장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 노대통령은 ‘국가와 국민, 그리고 역사에 대한 무책임감’을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자살행위를 ‘국가적 명예 실추’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 속에서, 자살은 한 국가의 발달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나타나며, 특히 1960년대부터 한국 지배 세력이 즐겨 사용해 온 국가 성장 중심주의 및 국가 간 경쟁 논리와 결합되어, 한국이 국가 간 경쟁 속에서 ‘뒤떨어지고 있다’는 정치적 암시를 내포하기도 한다.

2) 자살=소외된 사회 계층의 유일한 탈출구

경향신문 사설 “따뜻한 눈길이 ‘자살전염병’ 막는다”(경향 2008년 10월 7일자)는 “무한 경쟁사회에서 갈수록 커져만 가는 양극화의 그늘에는 무수한 자살 충동이 암세포처럼 자라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청소년부터 40대 가장, 노인에 이르기까지 경쟁에서 탈락했거나 소외된 계층들이 자살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이처럼 자살을 ‘소외된 사회 계층의 어쩔 수 없는 도피처’로 바라보는 시각은, 무엇보다 최근 증가하는 자살의 근본 원인이 1997년 이후 지속되어 온 경제적 위기에 있다고 바라보는 사회적 동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생계형 범죄 자살 막을 사회안전망 갖춰야”(세계 2008년 10월 28일자), “자살 부른 ‘환율’”(국민 2009년 3월 5일자), “3명 자살 내몬 악덕 사채업자”(경향 2009년 5월 7일자), “주가 폭락에 자살 ↑”(서울 2008년 10월 27일자), “자살률 위험 수위, 서로를 감싸주는 사회풍토 중요”(문화 2009년 5월 18일자)와 같은 기사들 역시 비슷한 관점 속에서, 기초 생활 보장이 되지 않는 집단들의 자살 위험성을 상기시

킨다.

그러나 소외가 단순히 경제적 소외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자살로 끝난 어느 시간 강사의 꿈”(서울 2008년 3월 8일자), “노숙자 자살 부른 ‘승용차강’”(문화 2009년 7월 16일), “‘황혼자살’ 우울한 고공행진”(서울 2009년 1월 19일자), “‘10대들의 상처’에 소금뿌리는 사회”(한겨레 2008년 8월 21일자), “자살 전에 쓴 사병 유서 분대장이 불태워 ‘목살’”(문화 2007년 4월 26일자), “자살 여성 재소자에 국가배상판결”(내일 2006년 9월 7일자), “업주 자살 안마시술소 여종업원도 숨져”(한겨레 2008년 11월 1일자) 등의 기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시간 강사, 노숙자, 독거노인, 따돌림 받는 청소년, 군대 사병, 여성 재소자, 성 매매 관련 종사자와 같은 보다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미에서의 소외계층들에게 자살은 헤어 나올 수 없는 고통의 도피처로 나타난다. 이처럼 자살을 사회병리학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임과 동시에 현재 한국 사회에서 자살을 바라보는 핵심적인 태도 중 하나로서 나타난다.

3) 자살=부당한 대우 및 불합리한 정치체제에 대한 항의

자살이 정치적 저항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일이 비단 한국 사회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1970년 평화시장 노동자였던 전태일의 분신을 비롯한 각종 노동자, 농민, 학생집단의 저항적 자살행위가 한국 정치체제 및 노동 조건의 변화에 중요한 기여를 해 온 만큼, 자살은 한국 사회에서 저항의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더 이상 1970~1980년대 이루어진 분신자살의 형태처럼 분명한 저항 의도 속에서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살은 자주 발견하기 힘들다. 그러나 그와 비슷한 경우가 지금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또한 이제는 보다 개인적인 형태 속에서 사회 정치적 문제를 고발하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자살 이어 분신, 울부짖는 태안”(한겨레 2008년 1월 19일자)은 사상 최악의 원유유출로 생계

의 터전을 잃은 어민 두 명이 잇따라 자살한 이후, 다시 어민 한 명이 분신을 시도한 사건에 대한 기사이다. 기사 속에 나타난 지역 주민들은 “삼성이 사람 죽인다”며 계속되는 어민 자살의 책임이 삼성 기업에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청소년 ‘유서로 고발한’ 입시지옥”(경향 2007년 7월 16일자)은 학생 개인의 유서를 통해, 청소년의 자살이 개인적인 문제 때문이라기 보다는 과도한 입시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정책 및 사회 구조에 있음을 비판한다.

한편 이처럼 자살이 갖는 사회 고발적 성격으로 인해, 연예인 혹은 정치인의 자살은 종종 그 죽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켜 왔다. 예컨대 연예인 장자연의 자살이 우울증 때문인지 아니면 연예기획사 및 거대 언론사의 부당한 성 접대 강요로 인한 것인지 논란이 되어 왔으며,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 이명박 정권의 과도한 억압 수사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인지 아니면 뇌물 수수와 관련된 수치심에 의한 것인지 또한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 왔다(예컨대 다음 두 입장을 비교해 보라. “자살의 신화화”(문화 2009년 6월 10일자), “자살의 메시지”(한국 2009년 5월 26일자).

4) 자살=의지의 나약함 혹은 무책임의 발로

자살을 개인의 나약한 의지 혹은 책임 회피로 보는 관점은 한국 사회의 주된 시각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이 된 신문 보도 속에서는 그다지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이러한 관점은 군내 자살자에 대한 논의 속에서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구타···가혹행위로 자살군인’ 행심위, 국가유공자 첫 인정”(세계 2008년 10월 15일자)에 따르면, 2008년 10월 국가는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선임대원의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한 군병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또한 두 달 후에는 27년 전인 1982년 가혹한 행위에 의해 자살한 사병에게 유족들의 요구를

일부분 받아들여 국가가 3,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가혹행위로 자살한 사병 국가가 배상”(서울 2008년 12월 23일자) 참조. 이러한 국가 결정들은 자살뿐 아니라 군인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시각이 변화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이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입장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예컨대 “자살한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다니”(세계 2008년 10월 29일자)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에서 기고한 글로, 재향군인회 대변인은 ‘생명을 바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할 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는 명백한 직무유기’ 라면서 ‘국립현충원에 누워계신 호국영령들이 벌떡 일어나 탄식할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동아일보 사설 “‘군자살자=국가유공자’ 라는 해괴한 정부결정”(동아 2008년 10월 16일자)은 자해행위는 공적(功績)이 될 수 없으며 자살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기존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손상시킨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예들은 자살이 어떤 사람에 의해 수행되었느냐에 따라 사회적으로 다른 기준과 해석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5) 자살=우울증이 만들어 내는 병적 태도

자살자 급증과 더불어 한국 사회는 우울증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는 듯이 보인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자살한 여자 연예인들의 우울증 병력이 소개되면서 자살뿐 아니라 우울증에 대한 경각심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일보의 자살 예방 특집으로 “자살을 막아라” 시리즈를 발간하면서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우울증 문제를 다루었다(한국 2008년 10월 7일자). 이 글에서 기자는 우울증이 전 국민 2.5%가 앓고 있는 “소리 없는 살인자”이며 자살 시도자의 70%가 경험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우울증 자가진단법”을 부록으로 삽입하기도 하였다. “자살충동 왜? 사업실패, 가정불화, 우울증 주된 원인”(국민 2008년 10월 21일자)에서는 특별히 여성 자살 시도의 주된 원인으로 우울증이 이야기되었다. 또 경향신문의 “자살도 질병이다” 시리

즈는 자살이 정신 질환과 높은 관련성을 가진다는 전제 속에서 다양한 예방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우울증에 대한 인식은 점차 확대되는 듯하지만, 한국 사회는 아직 그 치료방법으로서 약물 복용이나 전문가 상담을 권하기보다는 자가 치료 혹은 가족의 보살핌에 호소하는 경향이 있다. “자살률 높은 40 50세대, 상담률 최저”(동아 2009년 3월 13일자)는 자살 사망자가 가장 많은 40대 및 50대 남성들이 자살위기사담전화를 가장 덜 이용한다는 조사 결과를 보여 준다. 또한 “우울증 자살시도, 가족관계 회복으로 막는다”(동아 2009년 5월 14일자), “‘가족’은 자살 막는 가장 큰 인간관계”(문화 2008년 11월 5일자) 같은 기사들은 ‘자기 살해’의 위험이 있는 정신 질환의 문제를—설령 그 원인이 가족에 있다고 하더라도—가족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가족주의적’ 한국 사회의 측면을 보여 준다.

6) 자살=언론 및 인터넷에 의해 조장된 사회악

몇몇 연예인들의 자살이 인터넷 ‘악플’과 관련되어 있다는 소식은 인터넷을 자살의 주범으로 모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또한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연달아 발생한 동반 자살이 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계획된 것이라는 보도로부터 인터넷은 자살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규제해야 하는 대상으로 등장했다. “블로그, 쪽지, 지식검색 동반자살 부른다”(서울 2009년 4월 17일자), “동반자살 비극 부른 인터넷 댓글”(한국 2006년 10월 30일자)은 이러한 시각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기사들이다. 한편 “자살보도’ 선정주의 여전”(국민 2008년 10월 9일자), “복지부 ‘자살보도 신중히’”(문화 2009년 4월 25일)에서 드러나듯이, 구체적인 자살방법을 묘사한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가 모방 자살 심리를 부추긴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었다.

인터넷 사이트와 연관된 자살사건들은 즉각적인 자살 예방의 조치를 요

구하는 우세한 사회 담론 속에, 공공 정보 교환의 장소인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통제 권한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예컨대, “자살사이트 늘어 가는데 경찰 ‘처벌규정 없다’ 손 놓아”(세계 2006년 10월 30일자)는 2006년의 경우만 하더라도 자살 관련 사이트의 운영자가 구체적인 자살 방조의 혐의가 없는 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없었던 실정을 드러낸다. 그러나 “인터넷 자살 정보 삭제 폐쇄”(경향 2009년 5월 19일자), “자살사이트 발견 즉시 폐쇄”(동아 2009년 5월 4일자), “‘자살유해게시물’ 8,000여 건 적발”(문화 2009년 5월 22일자) 등의 기사들로부터 알 수 있듯이, 2009년 5월 정부는 인터넷에 떠도는 자살 관련 정보사이트를 ‘발견 즉시 삭제, 폐쇄’하기로 하였으며, 자살 카페 운영자 구속을 실행하였다.

지금까지 최근 3년간 카인즈를 통해 검색한 신문기사들 속에 나타난 자살 담론들을 추려서 정리해 보았다. 위의 6가지 담론들은 한국 사회가 자살을 바라보는 시각이 자살행위자가 누군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해석자의 정치적 혹은 개인적 목적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구성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본격적인 인류학적 연구를 통해 각각의 담론 생산을 주도하는 사회적 집단과 의미 생성의 복잡한 과정들에 대한 탐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 나오며

지금까지 인류학적 자살 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근 한국 자살현상의 특징 두 가지를 간략하게 소개했다. 특징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통계청의 자료와 카인즈의 신문 기사 검색을 사용하였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이 글에서 제시된 두 가지 특징이 결코 한국 자살현상의 모든 특징을 대변할 수 없으며, 아마도 연구자가 미처 발견하

거나 생각하지 못한 중요한 다른 측면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최근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2005년부터 현재 2009년 8월까지 서울대학교에서만 총 15편의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이 한국인의 자살을 다루고 있다. 다른 학교들까지 고려한다면, 엄청난 수의 자살 연구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듯도 아직 자살을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바라보는 인류학적 연구는 없는 듯하다. 이 글이 자살 연구에 관심 있는 인류학자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혹은 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Durkheim, Emile, 1997[1897], *Suicide: A Study of Sociology*, New York: The Free Press.

Lee, Hyeon Jung, 2009, "States of Suffering: Female Suicide, Subjectivity, and State Power in Rural North China," Ph. D. Dissertation in the Department of Anthropology at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 자료

『경향신문』 2006. 8. 1~2009. 7. 31일자.

『국민일보』 2006. 8. 1~2009. 7. 31일자.

『내일신문』 2006. 8. 1~2009. 7. 31일자.

『동아일보』 2006. 8. 1~2009. 7. 31일자.

『문화일보』 2006. 8. 1~2009. 7. 31일자.

『서울신문』 2006. 8. 1~2009. 7. 31일자.

『세계일보』 2006. 8. 1~2009. 7. 31일자.

『아시아투데이』 2006. 8. 1~2009. 7. 31일자.

『한겨레』 2006. 8. 1~2009. 7. 31일자.

『한국일보』 2006. 8. 1~2009. 7. 31일자.

통계청, 2002, 『2001년 사망원인통계결과』, 서울: 통계청.

_____ 2003, 『2002년 사망원인통계결과』, 서울: 통계청.

_____ 2004, 『2003년 사망원인통계결과』, 서울: 통계청.

_____ 2005, 『2004년 사망원인통계결과』, 서울: 통계청.

_____ 2006, 『2005년 사망원인통계결과』, 서울: 통계청.

_____ 2007, 『2006년 사망 및 사망원인통계결과』, 서울: 통계청.

_____ 2008, 『2007년 사망 및 사망원인통계결과』, 서울: 통계청.

_____ 2009a, 『2008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서울: 통계청.

_____ 2009b, "자살에 대한 충동 및 이유," 통계청 다운로드.

OECD, 2007, *OECD Health Data 2007*, OECD publishing.

WHO, 2009, "Country Reports and Charts,"

http://www.who.int/mental_health/prevention/suicide/country_reports.